

# “비상계엄서 민주주의 수호한 오월 명령 뜻 이어갈 것”

4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맞아 전남지역에서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열렸다. 추모행사는 지역의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기획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12·3 비상계엄에 맞서 지켜낸 민주주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5월 정신 계승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짐했다. 편집자주

## ●순천시민문화제 ‘민주주의 축제’

순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순천시민비상행동이 제4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순천시민문화제를 지난 17일 조례호수공원에서 개최했다.

시민문화제는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축하하고 2025년에 다시 만난 오월을 기념하기 위해 ‘제45주년 5·18민중항쟁 순천시민문화제’를 ‘민주주의 대축제’로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조례호수공원에 공동체 천막을 운영하고 ‘헌법 전문 빈칸 채우기’, ‘오월 정신 주먹밥 나눔’, ‘광장을 지킨 K-음원봉 퀴즈’, ‘세상을 바꾸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장 설문조사’ 등 민주주의 체험 행사를 운영했다.

시민문화제는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켜온 소리골 남도, 두엄자리, 한얼복소리, 당산, 터울림, 선무용단, 도사농악단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길놀이단 풍물 행진으로 막을 열었다.

임철규(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전남도지부 순천지회장) 회장 추념사와 ‘청소년 오월 선언문’ 낭독 후 시노래밴드 등걸, 갑진 합창단, 순천6·15합창단, 순천YWCA합창단, 파파스 남성 중창단과 피어나 합창단 연주가 조례호수공원에 울려 퍼졌다.

기념행사위원회와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대표단이 참여자 518명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그날이 오면’을 제창했다.

시민문화제는 순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비상행동에는 순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순천지부, 순천시 농민회, 순천YMCA, 순천YWCA, 철도노조호남지방본부,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 순천615통일합창단, 순천평화나비, 순천언론협동조합, 태백산맥문화기행, 순천대민주동문화, 순천 NCC,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회 등 4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제45주년 5·18민중항쟁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일상 속 민주주의를 계승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45년 전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두환 신군부 총칼에 맞선 1980년 5·18민중항쟁은 2024년 겨울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들에 맞서 123일 동안 광장에서 촛불과 빛으로 내란을 진압 중인 빛의 혁명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순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와 순천시민비상행동이 제4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순천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 전남 지자체·시민단체, 제45주년 5·18 추모행사 잇따라

### ●5·18민주묘역 합동 참배

전남 일선 지자체들은 제4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맞아 5월 명령들을 추모했다.

나주시 청년 공직자들이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다.

윤병태 시장과 공직자들은 지난 15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합동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5·18민주묘지를 처음 방문하는 9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 공직자 20명이 함께 참배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젊은 공직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배우고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들은 5·18 민주항쟁 당시 희생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된 나주 출신 열사 28분 가운데 6분의 묘소를 직접 참배하고 헌화하며 지역의 아픈 역사와 시민정신을 되새겼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비상계엄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5월 명령의 뜻을 받들겠다”며 “합동 참배를 통해 젊은 공직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 순천 시민문화제 공연·체험 다채 나주·장흥 등 지자체 묘역 참배 영암군, 돌린저 초청 특별공연도



나주시 공직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도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성 군수와 실과소장, 읍면장 30여명은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했다. 추모담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공직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민주 묘역을 돌아보며 숭고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준 오월 명령들의 뜻을 기렸다.

김성 군수는 “5·18민주화운동은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의 상징이다”며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현재 우리 세대가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영암서 푸른 눈의 시민군 증언

영암군에서는 ‘푸른 눈의 시민군’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돌린저를 초청해 5·18 당시 상황들을 지역민과 공유했다.

영암군은 지난 16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돌린저를 초청했다.

기념식은 영암5·18민중항쟁 45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5·18을 준비·기억·실천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마련됐다. 기념식은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주제로 △영암5·18 역사 동영상 상영 △주먹밥 나누기 재연 △추모 분양소 운영 등을 실시했다.

돌린저는 영암5·18 기념식에서 ‘푸른 눈의 증언자 데이비드 돌린저 특별 증언’에 나와 영암군민에게 자신의 영암 생활과 5·18 상황 등을 들려줬다. 미국 국적의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당시 영암보건소에서 2년여간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임대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렸다.

1980년 5·18 당시 푸른 눈의 시민군이었던 그는 임대운으로 불리며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무전기를 감청하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을 통역하고, 시민군의 시신을 수습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5·18의 진실을 알리고, 한국 인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을 하며 광주정신의 국제화에 공헌했다.

돌린저는 책 ‘나의 이름은 임대운’에서 “광주항쟁 때 나는 이전의 나를 물었다. 1980년 5월에 내가 목격한 사건으로 또 다른 나의 일부가 태어났다”며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을 더 돕지 못한 후회는 죽는 날까지 남을 것이다. 광주 시민들과 희생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애란·순천·박경식·

나주·이재순·영암·최복섭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